

2021 영국 안전보건 법규 위반으로 기소된 상위 10건

무거운 벌금 부과로 안전보건 의식 UP, 사고 재발 Down



영국 정부는 안전보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으며,
기업이 안전보건규정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.

※사고 등 발생시기와 기소시점의 차이가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벌금액은 한화로 환산함



1위 물류회사 ‘말콤 그룹(WH Malcoln)’

2017년 작업장 근처 일반인 통제 소홀 등으로 11세 소년 고압 가공전선로 노출 및 사망
→ 650만 파운드 벌금 징수

약 103억원

고압 가공전선로 노출로 사망자 발생 벌금

2위 국가 가스 공급업체 ‘내셔널 그리드(National Grid· Natural Gas & Electricity)’

가스분배 시스템 관리 소홀, 동 시스템 매각 후 인수사(Cadent Gas Ltd.)의 기록 중
768건의 누락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안전청(HSE) 조사 후 다수의 주민과 대중이
노출될 위험을 고려
→ 400만 파운드 벌금 징수

약 63억원

가스분배 시스템 관리 소홀 벌금

3위 항공운송업체 ‘영국항공(British Airways PIC)’

공항 내 보행자·차량 이동 경로 미분리로 인해 보행자·수하물 이동수단 추돌사고로
근로자 중상
→ 180만 파운드 벌금 징수

약 29억원

이동 경로 미분리로 인한 추돌사고 벌금

4위 도시철도사 '타인 위어 메트로(Tyne and Wear Metro)'

2014년 창고 내부에서 고압케이블 작업 중 근로자 감전사
→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50만 파운드 벌금 부과

약 24.3억원

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감전사 발생 벌금

5위 '에식스 대학(University of Essex)'

국민보건서비스 신탁(NHS Foundation Trust) 정신과 병동 내 위험관리 미흡으로 2004년
부터 2015년까지 11명의 입원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
→ 150만 파운드 벌금 징수

약 24.3억원

위험관리 미흡으로 사망자 발생 벌금

6위 테마파크 '드레이튼 매너(Drayton Manor)'

2017년 놀이기구 위험성 평가 미흡, 인명 구조 시스템 부재 등으로 11세 학생 사망
→ 100만 파운드 벌금 징수

약 16억원

놀이기구 위험성 평가 미흡 등으로 사망 발생 벌금

7위 목재 기반 제조사 '에거(Egger)'

재활용목재 배달을 위한 적재 장소에서 보행로 확보 미흡 등 보행자 안전관리 소홀로
인해 작업장 내부에서 보행중이던 근로자 사망
→ 91만 파운드 벌금 징수

약 16억원

보행자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자 발생 벌금

8위 엔터테인먼트사 'Vue 인터네셔널(Vue International)'

영화관 체인에 설치된 리클라이닝 시트에 관람객의 목이 걸려 사망하는 사고 발생.
시설물 사용에 대한 위험성평가 소홀로 판단
→ 75만 파운드 벌금 징수 및 13만 파운드 피해자 보상 명령

약 12억원

위험성평가 소홀로 사망 발생 벌금

약 3억원

피해자 보상 명령

9위 국가철도공단 '네트워크 레일(Network Rail)'

2018년 장기간 변전소 내부 제습기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발생
→ 69만 6,666파운드 벌금 부과

약 11억원

제습기 관리 소홀로 화재 발생 벌금

10위 '다수의 건설현장의 원도급업자(Umar Akram Kharabi)'

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검사 과정에서 근로자 복지, 현장 보안 등
다수의 법규 위반
→ 12개월 지역사회 봉사 명령 및 3,000파운드 벌금 징수

12개월

지역사회 봉사 명령

약 500만원

감염법 위반 벌금

